

대한사료공업(주)

사료사업본부 상반기결산 및 축종전문화교육 실시

대한사료공업(주)(사장 이중길) 사료사업부는 지난 7월 11~12일 2일간 경기도 이천 소재 그린화재연수원에서 영업인력 전체가 참석한 가운데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목표 달성을 위한 영업 전략회의 및 축종전문화 교육을 개최했다.

이번 영업전략회의는 하반기 목표달성을 위해 실천의지를 공유하고, 고곡가, 고유가, 고생산원가의 3高 시대를 맞이하여 변화되고 있는 사료시장에 대처하기 위한 단합 및 일체감 조성을 위해 마련되었으며, 각 축종별 상반기 영업 활동, 성공사례와 하반기 축종별(양돈, 축우) 마케팅계획을 공유뿐만 아니라, 현재 시장상황을 극복 전략에 대한 각 축종별 분임토의와, 체육활동을 통한 화합의 장도 가졌다.

이날 이상민 사료사업부 본부장은 “고객은 기다려 주지 않는다”며, 영업전략에 있어서 “성사될 수 있는 계획을 세우는 치밀함과, 이를 실천하는 노력과 용기가 있어야 고객의 문을 열 수 있는 기회(타이밍)가 생기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 본부장은 “시장상황이 어려울수록 보다 철두철미한 계획과 부단하게 실천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고곡가, 고유가, 고생산원가 3高시대를 대비 자신의 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영업”으로 변화 할 것을 당부했다.

(주)선진

하절기 신제품 강화사료 보스 트리플케어 출시

(주)선진(대표이사 : 이범권)은 최근 신제품, 보스

트리플케어를 출시했다. 보스(BOSS)로 낙농시장에서 확고한 선두 자리를 지키고 있는 선진은 보스 트리플 케어를 선보였다.

보스 트리플케어는 ‘3배’ 라는 뜻의 트리플(Triple)과 ‘해결하다’ 라는 뜻의 케어(care)가 더하여 생긴 단어로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보스 트리플 케어는 세 가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한국 낙농의 고질적인 문제점인 ‘번식, 유지율, 체세포’ 문제가 바로 그것이다.

번식 문제에 있어서는 발정 강도가 약해지거나, 발정지속 시간이 짧아지고, 난포 발달·난소 기능 저하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고 특히 후산정체나 난산과 같은 경우 보스 영양소 시스템을 적용하여 이를 해결코자 한 것.

유지율이 저하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특수 보호지방을 사용하고, 유지방 지수 관리 시스템을 이용하고 있다. 또한, 환경 스트레스가 증가하고 면역력이 떨어져 체세포가 증가하는 문제는 비타민 E, 셀레늄 등 각종 영양성분을 농축하여 해결하고 있다.

(주)선진의 최정기 축우PM은 보스 트리플케어가 ‘환경이 열악한 목장에 더욱 권하고 싶다’며 ‘환경이 열악할수록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데 이를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 보스 트리플케어가 이를 도와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뿐만 아니라, 체세포 수가 높고 유지율이 낮아 생산성이 떨어지는 목장 또한 효과가 클 것으로 보인다. 생산비가 점점 높아지는 현실에서 유질을 높여 두당 사료비 공제 수익을 올리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 밖에도 완전 TMR을 급여하는 목장, 번식 성적을 개선하고 생

산성 향상을 원하는 목장도 권하고 있으며 권장량은 일일 두당 2kg 이다.

(주)선진은 하절기 생산성 향상을 위해 특별 처방 사료를 공급하고 있다.

올해 낙농 특별 처방 사료는 비타민 B군에 주목하였다. 최근의 실험결과를 보면 비타민 B군의 급여량이 증가할수록 산유량이 증가하고, 소장 내 흡수효율이 높아지는 것을 볼 수 있었다. 비타민 B는 정상적인 조건에서는 반추위 내에 서식하는 미생물에 의해서 충분한 양이 합성되지만 더위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사료 섭취량이 저하되고, 미생물 합성 양이 감소되어 비타민 B군 공급량도 저하될 수밖에 없다.

이에 사료를 통해서 이를 섭취할 수 있도록 설계한 것이 이번 낙농 하절기 특별 처방 사료의 핵심이다.

CJ제일제당

사료BU 축산/기술연구소 R&D SHOW CASE에서 '호평' 주목

CJ제일제당 사료BU(부사장 박호인) 사료/축산 연구소는 지난 6월 27일 필동 CJ인재원에서 거행된 CJ R&D SHOW CASE에 참가했다.

CJ R&D SHOW CASE는 CJ제일제당 산하 각 연구소의 신제품 및 신기술을 전시하여 전사 임직원들에게 공유하는 자리이다. CJ는 작년에 출시한 퍼펙트 마이스터, 톱심, 프리미엄 광어EP 제품들과 함께 CJ 온라인 정신으로 탄생한 낙농전산프로그램인 SMART FARM PROGRAM, 차별화된 TMR사료 등을 선보여 임직원들에게 많은 호평을 받았다. 또한, CJ그룹이 보유하고 있는 여러 식품, 바이오의 획기적인 첨단 기술을 사료 개발에 응용

하는 것에 대해 많은 의견을 나누었다. 이날 사료BU 부스를 방문한 이재현 회장은 "CJ 온라인 정신의 실천은 모든 분야에서 이뤄져야 하며, 그 중에서도 "R&D 분야는 온라인적인 가치를 실현하는데 특히 앞장 서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한편 CJ 사료/축산연구소는 1987년 설립 이래 축산농가에 안전하고 고효율의 사료 및 과학적인 사양기술을 제공하고, 소비자들에게는 안전한 사료를 급여하여 생산된 축산물을 공급함으로써 국민 건강에 기여하며, 해외에 선진 축산 기술 수출을 확대하고 있다.

CJ사료/축산연구소는 2002년 업체 최초 KOLAS 인정을 받았으며 2008년에는 갱신평가 인정을 받았으며 추가로 4개 항목에서 신규 인정을 획득하였다.

사료BU와 (주)비락간 사업 제휴 조인식

지난 7월 18일에 부산 문현동소재의비락강당에서 CJ제일제당 사료BU(부사장 박호인)와 비락(사장 박경수)은 사업 제휴 조인식을 거행하였다.

CJ의 비전은 '건강, 즐거움, 편리를 창조하는 제일 좋은 생활문화 기업'로 '고객의 행복을 추구하는 미래 창조기업'으로 비락의 비전과 만나 궁극적으로 '고객지향'이라는 동일한 비전 아래 양사의 협력적인 관계가 더욱 기대된다.

CJ는 (주)비락의 New Biz Model에 파트너로 참여하게 된 것에 대해 감사드리며 우수한 인적자원, 경쟁력 있는 기술력, 지속적인 성장 경력을 바탕으로 비락과 함께 지속 가능한 Real NO.1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급변하고 어려운 축산환경 속에서도 CJ는

Only one 정신을 바탕으로 최초의 것, 최고의 것, 차별화 된 제품과 서비스를 적극 현장에 적용하여 고객의 가치창출에 이바지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15년간 낙농부문 업계 부동의 1위를 고수하고 있는 CJ Feed 낙농브랜드는 3C(변화 Change, 고객 Customer, 핵심역량 Core Competence)라는 관점 아래 가능했으며 이러한 모든 가치들은 (주) 비락의 사업성공을 위한 과정에서 온전히 제공될 것이라고 관계자는 밝혔다.

사료BU와 안성지역 육우농가[단체명 : 행복한 미(味)소(牛)]간의 MOU 체결!

CJ제일제당 사료BU(부사장 박호인)는 지난 7월 17일 인천소재 CJ중부사업부에서 경기도 안성지역 육우농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사업조인식을 체결하였다.

이번 업무협약은 CJ Feed의 육우등급 개선기술과 안성육우농가들의 사양기술 접목을 통해 대한민국을 대표할 정통 육우브랜드를 개발하여 미산 쇠고기수입에 대응하고 새로운 생존동력을 모색한다는데 큰 의의가 있으며, CJ Feed는 육우전용사료와 급여프로그램 및 종합 컨설팅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육질등급 2등급이상 출현율70% 이상으로 목표하고 있다.

또한, CJ Feed는 웰빙시대에 걸맞는 브랜드육을 개발하여 소비자 중심의 브랜드로 육성하고 육우시장을 안정화시켜 고곡물가시대에 생산성 극대화 와 수익창출이라는 두 마리의 토끼를 잡을 수 있도록 농가경쟁력 강화에 중점을 두고 적극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날 CJ Feed와 조인식을 체결한 정진국 농가대

표는 “어려운 난국에 육우농가들이 뿌리를 내리고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는 CJ Feed와 손잡고 육우브랜드가 순수 국내산 소고기의 하나로 자리매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강한 의지를 표명하였다.

사료BU '베트남 빈롱 공장' 준공

대한민국 식품 1위 기업 CJ제일제당의 사료BU(부사장 박호인)는 지난달 27일 베트남 빈롱공장 준공식을 거행하였다. CJ빈롱공장은 2001년 베트남 진출이후 건설된 3번째 사료공장으로 연간 3만톤 규모의 생산능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최신설비를 위해 총 250만달러(USD)가 투자되었다.

CJ는 베트남이 인도차이나의 중심시장으로 자체 내수규모가 크고 향후 주변국 진출의 교두보 역할과 경제발전에 의한 육류소비량 증가로 인해 투자여건이 양호하다는 전략적 판단 아래 10년전부터 활발히 사업영역을 구축 중에 있다.

2001년 준공된 CJ Vina Agri의 룡안성 공장은 연간 22만2천톤 생산능력으로 호치민시 인근으로 양돈, 양계 등의 제품을 생산하여 대리점을 통해 판매해 왔으며 2003년에는 사업을 다각화하여 새우사료 및 양어사료 공장도 가동 중에 있다.

CJ Vina Agri는 2005년 북부의 하노이 흥옌에 제 2공장을 건설하면서 베트남 전 지역으로 입지를 확대하였고 우수한 품질과 Brand 인지도에 힘입어 룡안성의 기존 공장도 증설하였고 금번 빈롱공장의 준공으로 CJ는 베트남에서 연간 37만2천톤 체제로 가동 중에 있다.

“베트남 정부의 적극적인 해외투자 유치와 농축산 산업에 대한 장려 등과 함께 사료시장이 초기 발

전 단계라는 면에서 CJ Vina Agri의 전망은 밝다”라고 관계자는 밝혔다.

1973년 부산에서 시작한 CJ의 사료사업은 국내 축산업 발전에 일익을 담당해온 역사를 바탕으로 1996년 인도네시아의 사료공장을 시작으로 동남아 및 중국, 터키, 인도에 사료 및 축산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Global기업으로 성장해왔다.

1960년대 초 외국 기술을 기반으로 성장해 온 국내 사료사업이 이제는 CJ에서 하는 것과 같이 우리의 기술로 해외에 사료공장과 종계장, 종돈장을 짓고 현지의 인력을 채용하여 생산과 판매활동을 하면서 당당하게 세계 유수의 사료, 축산기업들과 어깨를 마주하고 있는 것이다.

CJ의 해외 사료사업은 철저한 시장조사를 바탕으로 진출대상국을 정하고 사업범위를 결정해 진행되었다. 진출 초창기에는 인지도의 부족과 언어, 문화의 이질성으로 상당한 어려움도 많았으나 열정과 도전 정신을 통해 이 모든 것을 극복해나가면서 현재는 사업의 확장과 수익향상을 위해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우성사료

낙농 오웰빙 우수농장의 날 행사 실시

우성사료(대표이사 지평은)가 낙농 우수목장의 날 행사를 실시했다. 지난 6월27일 충북 진천소재 장미웨딩홀에서 충북지역 낙농경영인 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3개 목장의 우수한 성적을 비디오를 통해 생동감 있게 소개하는 한편 고곡가 시대를 슬기롭게 헤쳐나갈 방안에 대한 세미나를 실시했다.

두산목장(대표 장치범/충북 진천)은 연평균 77두를 착유하는 농장으로 평균 유량이 37kg에 달하며

현재에도 지속적인 유지율 개선을 보이고 있다. 알프스목장(대표 정하준/충북 괴산)은 우성사료 오웰빙 급여 후 평균 유량과 유지방이 각각 8kg과 0.2%가 증가했으며 평균 산차는 0.8산이 개선됐다.

중앙목장(대표 음준호/충북 괴산) 역시 유량 3kg, 유지방은 0.2% 증가 했으며, 체세포 수는 7만이 감소하는 놀라운 변화를 가져왔다.

이번 행사를 진행한 이창원 축우부장(우성사료)은 이러한 좋은 성적과 수익향상을 낼 수 있는 이유로

첫째, 건물섭취량 최대화

둘째, 에너지 불균형의 최소화

셋째, 번식효율의 향상

넷째, 우성의 낙농 서비스(MMPHAL) 적극 활용

다섯째, 젖소의 5대 기관을 튼실히 하는 오웰빙 사료와 우성낙농 프로그램을 꼽았으며, 고 곡물가 시대에 지속적 생산비 상승에 맞설 수 있는 유일한 방법으로 평균 산치를 늘리는 것과 경영마인드를 갖고 세심한 개체관리 통한 생산성 증가를 강조하였다.

하반기 경영전략회의 실시

우성사료(대표이사 부회장 지평은)가 지난 7월10일 대전 본사 대회의실에서 하반기 경영전략회의를 실시했다.

2008년 상반기를 결산하고 남은 하반기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어가기 위해 마련된 이번 회의에서는 영업을 비롯한 각 분야의 중역들이 참석한 가운데 상반기 실적에 대한 심도 있는 분석과 하반기 전략발표로 이어졌다.

영업을 책임지고 있는 오종균 상무이사는 지난 상반기 동안은 “농장의 수익실현을 결과로 보여주고 싶었다.”며 “이를 실현하기 위해 축종별 전문화

를 실시했고, 이전 안정화 단계로 그 결과들이 실증으로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우성사료는 지난 상반기 동안 10회의 우수농장의 날 행사를 비롯해 108건의 실증 DM을 만들어 냈으며 앞으로도 기술서비스 확대와 입증판매를 활성화 할 것 이라고 말했다.

한편 생산성 향상과 합리적인 노사관리를 통해 내부비용을 절감하는데도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노조가 회사측에 5년 연속 임금협상을 위임하는 바람직한 노사문화를 정착해 나가고 있으며 지속적인 경영합리화를 추진하고 있다.

2008우성사료 한마음교육 실시

(주)우성사료(대표이사 부회장 지평은)가 지난 7월 11~12, 25~26일 2차에 걸쳐 경북 문경에 위치한 문경관광호텔에서 “2008우성한마음교육”을 실시하였다.

영업, 관리, 생산관련 모든 조직원이 참석한 이번 행사는 “경영환경의 변화에 따른 대응전략”과 “팀 리더십”를 주제로 교육이 실시됐다.

첫 강사로 나선 강신돈(국민대 경제학부)교수는 한국경제의 현황과 전망을 주제로 국제경제의 흐름과 한국이 처한 위치를 주변국가와 비교하여 설명하며 기업이 나아갈 지표설정이 무엇보다 중요함을 강조했다.

한편 조직에서의 리더는 필요한 덕목을 갖추고 팀워크를 통한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자는 내용의 강의를 비롯해 다채롭고 유익한 프로그램으로 1일차를 마감하고 다음날 새벽 참가자 모두가 1,075m의 주호산 주봉을 등반하며 조직의 단합과 심신을 단련하는 시간으로 1박 2일간의 행사를 마무리했다.

(주)이엘티사이언스

“비타에너지” 세계최초로 특허 받아

동물약품제조업체인 (주)이엘티사이언스에서 연구개발한 경구용 고에너지 함유 대사촉진제인 “비타에너지”가 세계최초로 특허를 획득하는 쾌거를 이룩했다.

“비타에너지”는 착유농가에 경제적 손실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는 케토시스, 지방간증 및 이에 기인한 이등유와 번식장애의 원인이 되고 있는 에너지대사의 불균형을 예방하고 해소시켜주기 위하여 수년간의 연구 끝에 개발된 제품으로 세계최초로 “프로필렌글리콜을 이용한 동물용 액상에너지 복합 조성물 및 제조방법 ‘The liquid energy composition of propylene glycol for animal and a Method thereof’ 이라는 명칭으로 지난 5월 21일자로 특허를 획득했다(등록번호 : 특허 제 10-0832741).

비타에너지는 항케토시스 인자(나이아신, 프로필렌글리콜)와 간기능 개선 및 대사촉진제(콜린, 솔비톨)를 과학적으로 처방하여 케토시스, 지방간증 후군 및 이등유 개선효과가 탁월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1회 투여용량인 300ml를 특수 제작한 투약용기에 포장하여 누구나 쉽게 경구적으로 투여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특히, 젖소 체내에서 반추위를 통과하여 혈중으로 직접 흡수되는 고에너지 결합체인 프로필렌글리콜이 고농도로 처방되어 있으며 기호성 또한 우수하여 식욕이 저하된 허약우에도 편리하게 투여할 수 있어 양축농가로부터 더욱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